"설법 보다 '茶道'로 인성교육 어때요"

청주 화장사 유치원 교사 대상 다도교육

"차(茶)자리를 준비하는 것부터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작입니다. 차를 마시며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 인식을 바꿔보세요."

3월 27일,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 법당에 초의차명상연구원장 지장 스님(서울 대원정사 주지)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내 담소를 멈추고 가부좌를 틀었다. 이날은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가 청주시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도교육의 마지막 날.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청주 벽암 어린이집, 용전 어린이집, 주성 어린이집 등 3곳의 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에 참가했다. 다구를 옮기고 차를 따르는 손길에 집중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화장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진행해왔다. '아이들에게 차(茶) 공부를 통해 우리 전통을 익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을 주관한 화장사 주지 무진 스님은 20년 전 다도(茶道)를 접하고 다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무진 스님은 "아이들에게 딱딱한 설법을 하기보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 포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에게 다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다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이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다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다도를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교육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다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처음에는 다도와 예절, 명상 등이 낯설기만 했다. 4주간의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청주 용전어린이집 정세희 교사는 "명상과 다도의 철학적인 이론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저 역시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교사는 "다도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통을 배우고, 차분함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월 27일 열린 다도교육에 참가한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차 따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청주 용전어린이집 정정희 원장은 "현재 아이들에게 놀이시간을 이용해서 절하는 방법이나 명상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다도 교육은 분명히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유치원 원장들에게 이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손효선 기자

대구지역 불교유치원 재학생 12명이 동자승 체험을 위해 4월 2일 삭발을 했다.

"꾸러기들이 스님 됐어요"

대구 동화사 동자승 삭발식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는 4월 2일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식을 개최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지역 불교유치원에 재학 중인 12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이날 동자승들은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에게 어린이 오계와 법명을 받고 출가체험을 시작했다. 허운 스님은 "동심이 곧 불심이고, 불심은 또한 동심"이라며 "불자들이 동자승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동심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동자승들은 앞으로 봉축행사에 참가해 부처님오신뜻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한편, 4월 10~11일에는 금강산 신계사도 참배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국성림원 본격 운영 개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 '불국성림원'이 4월 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문을 연 불국성림원은 1300㎡(약 400여 평)의 지상 2층 규모로 물리치료실과 목욕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치매와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실비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수용인원은 50여 명 정도다.

이날 개막식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김영일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내 나무 심기' 템플스테이

뽕잎차로 불자들에게 유명한 합천 금강선원(주지 초중)은 4월 12~13일 양일간 '내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연다. 참가자들은 금강선원 도량에 내 나무 심기와 더불어 참선체험, 불교예경의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사물을 관찰하는 법,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선착순 20명. 개인 및 가족단위 동참이 가능하다. (055)931-9590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동종 수륙 영산대재와 불치사리 친견법회에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조동종 선상고혼천도수륙재 봉행

보상사 불치사리 친견법회도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3월 24~28일 선상고혼천도수륙재 및 중국 보상사 불치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종정스님은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 이 법석이 더욱 빛나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아름자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불자님들이 서로 법우로써의 예를 배우고 깨우쳐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정을 마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보상사 불치 사리친견 법회를 마치고 보상사 주지스님과 만난 덕우 스님은 "중국와 한국의 불교가 유대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상사 스님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

대전 파라미타 사무실 문 활짝

진철·선오 스님 등 참석

대전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회장 선오, 이하 대전파라미타)가 3월 29일 '대전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소식 및 현판식은 대전 파라미타 총재 진철 스님, 대전 파라미타 회장 선오 스님, 광덕사 주지 선일 스님, 파라미타중앙회 조한곤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이 법회나 중·고등 청소년 법회가 침체돼 있어 한국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며 "대전 파라미타가 대내외 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한국 불교의 미래에 밝은 등불을 밝히자"고 했다.

한편, 대전 파라미타는 4월 19일 총재, 부총재 추대식 및 회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문화체험대회, 걷기대회, 청소년단체 연합문화축제, 만화공모전, 문화재 답사, 해외 문화탐방 등을 진행한다. 손효선 기자

고우 스님 '선요' 강좌 개최

참선수행자라면 누구나 읽고 배워야할 필독서라 알려진 고봉원묘(高峰原妙) 선사의 <선요(禪要)>를 이 시대 선지식 고우 스님(前 태백산 각화선원장, 조계종 원로의원)의 가르침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원장 허경만)이 개원 2주년을 맞아 5월 13일부터 매월 1회 진행할 예정인 '<선요>대강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 불교인재개발원이 고우 스님을 강사로 초빙한 <선요>대강좌는 불교인재개발원의 '간화선 대중화사업' 일환으로 2006년 개설된 '선지식 초청강좌'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강좌다.

강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리며 동참금은 20만원이다.(02)735-2429

김강진 기자

"새로 출가하는 기분"

군종감 전역 이종인 법사 해인사 복귀

"한단지몽이라는 말처럼 저도 이제 법사의 꿈을 깨고, 새로 출가하는 기분으로 해인사로 돌아갑니다."

육군본부 군종감 대령 이종인 법사(사진)가 3월 31일 전역을 하고 해인사 원오 스님으로 돌아왔다. "법문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이종인 법사는 법문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애창곡은 '남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와 군종감이라는 위치에서의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고민 때문이란다.

이 법사는 "계룡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육·해·공군의 법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법문을 할 기회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없는데 저는 월 1회 이상은 법문을 할 수 있었다"며 "후배 법사님들이 많이 양보를 해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원호 법사는 1967년 해인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병으로 의무 복무를 마쳤다. 1985년 육군 군승 43기로 임관 해 육군본부 군종감실 종무장교, 육군 계룡대 호국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부터 육군 군종감 소임을 맡았다.

한편, 3월 30일 계룡대 호국사는 이종인 법사의 환송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죽암사 주지 도광 스님과 공곡 스님, 정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釋 明 書

1. 대다수 태고종도는 법보신문을 불신한다

가. 불교언론은 불교계의 전문지로서 진실에 입각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책임성 있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전달 등의 역할을 자임하고, 언론기능의 보편성과 더불어 종교적 양심과 윤리성마저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언론의 책임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근래 법보신문은 불교계의 정서를 선동하는 의혹 기사를 남발하여 태고종과 운산 총무원장을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의심되는 소설같은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종단은 물론, 운산 총무원장을 철학과 상식적 판단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도록 조장하였다.

다. 법보신문은 의도적으로 사찰을 교회에 매각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화 함으로써 불교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과 이웃종교에서 불교종단과 승려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지 — 최소한의 종교적 양심과 윤리성마저 상실한 취재행태는 곡필언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라. 태고종의 대다수 종도들은 법보신문의 기사를 불신하고 있고, 운산 총무원장을 적극 지지하며, 오히려 건전한 종도들은 현재와 같이 해종자들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종단을 과감히 개혁하여 전통종단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가. 운산 총무원장은 1959년도에 득도하여 1960년대에 법륜사(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당시 교단 분규의 현장을 경험한 종단사의 산 증인일뿐만 아니라 34세에 종단의 총무부장에 임명된 후 70여 평생을 종단과 함께한 스님으로 평소에도 항상 겸손하고 본분에 충실한 생활을 하여 너무나 사무적이고 사생활도 없이 종단 일만 하는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운산 총무원장은 또 공인으로서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검소한 생활(편지봉투까지도 이면지로 사용하고, 한때는 사찰에서 도시락을 가져와서 점심공양을 하는 등)이 몸에 배인 스님이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종단에 가장 많은 성금 및 분담금(수억원)과 전승관 성금(2억원)을 납부하였고, 더욱이 총무원에서는 무보수로 근무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종단의 지도급 스님들과 대다수 종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 우리 종단은 운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종단제도를 개선했고 종단사에 길이 남을 전승관을 건립하였고, 동방대학원대학의 종립화와 동방불교대학의 교사매입과 사회복지법인의 종단인수 등으로 종단 발전의 초석을 다졌으며, 앞으로 종단의 승가 연수원 건립을 목표로 부단히 정진하고 있는데 금번 불미한 사건과 법보신문의 왜곡된 편파 보도로 인하여 전례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 하지만 운산 총무원장을 신뢰하여 조기에 종단 개혁을 단행하라는 종정예하의 유시와 종단 원로 중진스님 회의의 결의와 금번 제94회 정기중앙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오히려 우리 종단이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3. 전승관 관련 사건 내용은

가. 금번 전승관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총무원장과 재무부장이 전승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요지로 모 종도가 대검찰청에 밀고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개인 금융 등 재산 및 공사 관련의 각종자료(장부 및 전표, 은행통장 등)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사 관련 업체와 직원들을 소환하여 총무원장의 개인비리를 1개월여 집중조사하였으나 개인비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나. 그러나 전승관 준공 후에 국고보조금은 전액 낭비없이 전승관 건립에 사용했으므로 문광부에 보고한 것을 검찰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허위 보고로 판단하고 조사를 한 것이다. 운산 총무원장은 평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전승관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우리 종도의 공동 책임을 운산 스님이 대신하여 책임진 결과라 하겠다.

4. 도법사 및 극락사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가. 도법사 및 극락사의 매각관계는 종헌·종법과 사회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도법사는 사찰을 폐사한 것이 아니고, 이전불사과정에서 매매대금 일부는 전승관 불사자금에 공여(供與)되고, 나머지는 도법사 이전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양평군에 대지(1000평)를 매입하여 사찰을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 종단의 교육도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극락사는 봉원사의 도암 스님이 창건한 사설사암으로 전 주지인 이상균이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주지가 기독교인에게 매각한 것이고 종단에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주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적인 재산처분을 승인해 주었을 뿐이다.

5. 사회복지법인 의 양촌 노인병원 건립 내용은

가. 논산시 양촌에 노인병원 겸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운산 총무원장의 친제(이모 사무국장)가 종단에서는 일정금액의 재정도 출연하지 않고 복지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법인 기본재산의 공시지가가 13억원 정도임)
나. 동 복지법인에 협조하겠다는 인사가 건설업자와 함께 병원건립을 제의하여 충분한 건립자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의 상무이사 책임하에 추진한 것인데 법보신문은 친인척이 위계한 비리인 것처럼 작위적으로 허구의 소설과 같은 기사를 각색 보도하였는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다. 총무원에서는 이모 국장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이모 국장은 종단과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종단에 위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6. 앞으로 법보신문에 대한 조치는

가. 현재 법보신문사에서 극락사의 전 주지를 고소하였으므로 그 조사과정에서 극락사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종단에서는 변호사에게 법보신문을 검토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자문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08년 3월 31일

한국불교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 의 장 일우 중앙종회의장 인공 중앙사정원장 월운